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4월 광공업 생산 감소폭 둔화, 서비스업 생산 증가, 소비 감소

○ 2009년 4월 광공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는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8.2%(전월대비 2.6% 증가) 감소함.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1.6%(전월대비 2.7%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18.4%), 화학제품(3.7%), 전기장비(4.2%)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23.3%), 자동차(-22.6%), 1차 금속(-20.3%) 등의 업종에서는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13.3%), 금융 및 보험업(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운수업(-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1%),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7%)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부진함.

○ 2009년 4월 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4.0%, 25.3%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기성액, 경상)는 7.6% 증가함.

－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내구재(-12.3%)와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1.0%)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전월대비 0.5%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1%p 상승하여 2009년 3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9%p 상승하여 2009년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7% 상승(생활물가지수 1.8% 상승)

- 200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함.
 - 2009년 4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 0.8%,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 0.3%, 교통 부문 0.6%, 교양·오락 부문 0.2% 각각 하락하였고, 보건의료·통신·교육 부문은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통신의복·신발 부문(2.6%)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4월	2/4	3/4	4/4p	연간p	1/4	4월
생산	광공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10.8	8.6	5.6	-11.3	3.0	-15.5	-8.2 (2.6)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11.5	9.0	5.5	-12.1	3.0	-16.4	-8.8 (2.8)
	출 하	5.1	7.2	5.4	10.6	7.1	8.9	8.6	6.3	5.3	-10.1	2.4	-14.8	-8.9 (3.1)
	수 출	6.7	9.9	9.1	16.2	10.2	14.3	14.8	13.5	10.3	-8.8	7.1	-12.5	-5.8 (0.8)
	내 수	4.1	4.9	3.0	6.8	4.9	5.3	4.7	1.7	1.7	-11.0	-0.7	-16.5	-9.5 (1.4)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6.3	4.6	3.2	-0.3	3.5	-0.5	1.6 (2.7)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6.0	2.5	1.4	-4.6	0.9	-4.9	-4.0 (0.5)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1.8	0.1	5.3	-16.2	-3.2	-23.0	-25.3 (-6.7)
물가		2.1	2.4	2.3	3.3	2.5	3.8	4.9	4.8	5.5	4.5	2.5	3.9	2.7 (0.0)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O),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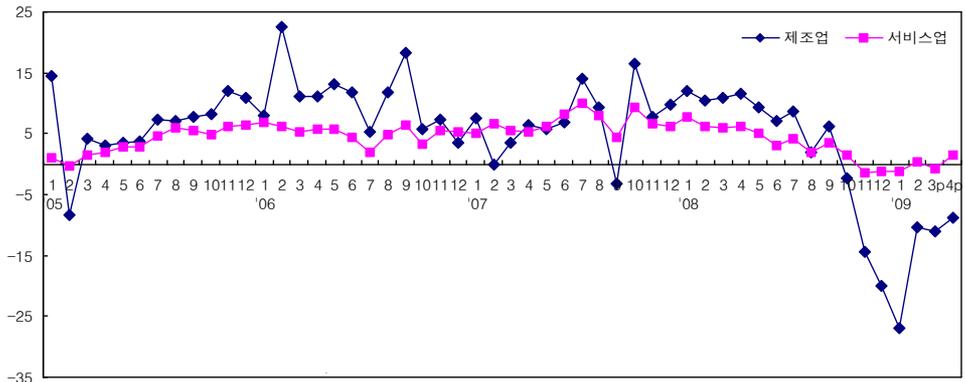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4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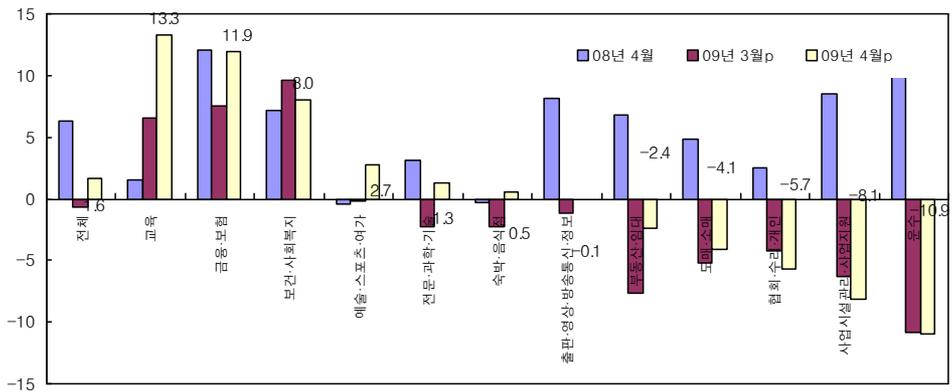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9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09. 5.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09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6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0.1%) 감소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55천 명으로 109천 명(0.8%) 증가한 반면, 여성은 10,203천 명으로 144천 명(-1.4%) 감소함.

- 2009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이 전년동월대비 0.5%p, 여성(49.9%)이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9년 5월 중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2%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하였음.
- 2009년 5월 중 취업자는 23,7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천 명(-0.9%)이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0.1%), 여성 취업자는 9,8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1천 명(-2.1%)이 감소함(그림 4 참조).
- 2009년 5월 중 실업자는 9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 명(24.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6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천 명(23.9%)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 명(25.5%)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2%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성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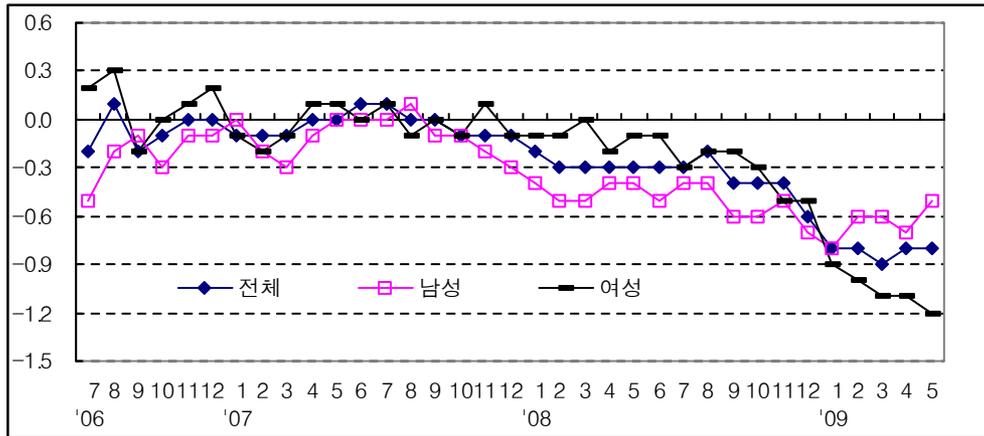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4,316 (1.0)	23,852 (0.7)	24,638 (0.6)	24,692 (0.6)	24,503 (0.6)	24,394 (0.3)	23,812 (-0.2)	24,456 (-0.2)	24,658 (-0.1)
참가율	61.8	60.5	62.3	62.4	61.8	61.3	59.7	61.2	61.6
취업자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752 (0.6)	23,636 (0.3)	22,904 (-0.6)	23,524 (-0.8)	23,720 (-0.9)
고용률	60.0	58.5	60.4	60.5	59.9	59.4	57.4	58.8	59.3
실업자	734	801	767	753	752	757	908	933	938
실업률	3.0	3.4	3.1	3.0	3.1	3.1	3.8	3.8	3.8
비경제활동인구	15,000 (1.3)	15,575 (1.8)	14,903 (1.7)	14,848 (1.7)	15,154 (1.9)	15,373 (2.5)	16,088 (3.3)	15,521 (3.4)	15,369 (3.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5월 고용동향』, 2009. 6.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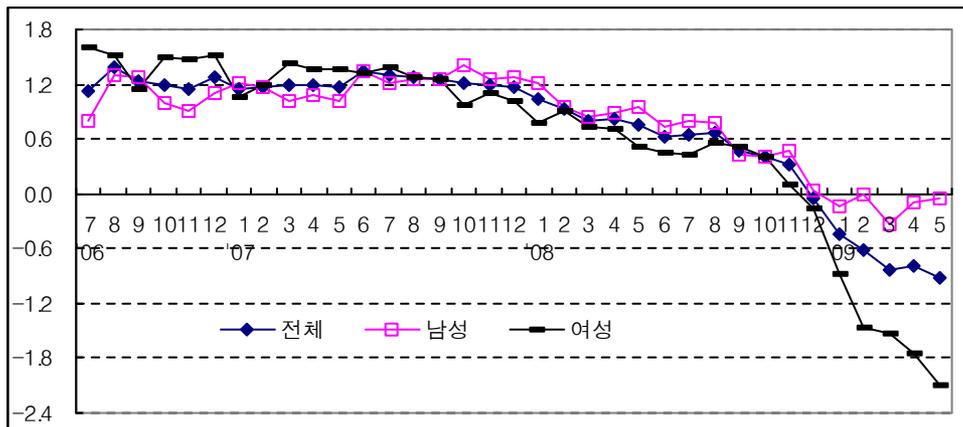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9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3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1천 명(3.5%)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5천 명(3.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7천 명(3.6%)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11.9%), 구직단념자는 1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41.6%),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306천 명으로 82천 명(1.9%) 증가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가속화

○ 2009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2천 명, 4.1%)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59천 명, -2.8%), 제조업(-140천 명, -3.5%), 건설업(-125천 명, -6.6%), 전기·운수·통신·금융업(-59천 명, -2.1%)에서는 감소함.

－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2009년 이후 급속하게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5월	
전 산업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752 (0.6)	23,636 (0.3)	22,904 (-0.6)	23,524 (-0.8)	23,720 (-0.9)
농림어업	1,687 (-3.8)	1,384 (-4.4)	1,842 (-2.8)	1,885 (-3.1)	1,824 (-2.0)	1,695 (0.5)	1,398 (1.0)	1,757 (0.0)	1,837 (-2.6)
제조업	4,013 (-0.8)	4,013 (-0.4)	3,993 (-0.8)	3,987 (-0.8)	3,934 (-1.3)	3,910 (-2.6)	3,850 (-4.1)	3,846 (-3.9)	3,846 (-3.5)
건설업	1,852 (-0.5)	1,748 (-1.2)	1,886 (-2.4)	1,893 (-2.1)	1,801 (-2.2)	1,811 (-2.2)	1,705 (-2.5)	1,773 (-6.7)	1,768 (-6.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19 (-0.3)	5,704 (-0.6)	5,670 (-0.7)	5,678 (-0.7)	5,670 (-0.9)	5,657 (-1.1)	5,589 (-2.0)	5,531 (-2.2)	5,519 (-2.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487 (4.6)	7,382 (3.8)	7,643 (4.0)	7,642 (3.7)	7,721 (4.5)	7,787 (4.0)	7,618 (3.2)	7,852 (3.9)	7,954 (4.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6 (2.7)	2,796 (2.7)	2,816 (1.8)	2,833 (2.7)	2,778 (-0.7)	2,754 (-1.9)	2,722 (-2.6)	2,743 (-2.4)	2,774 (-2.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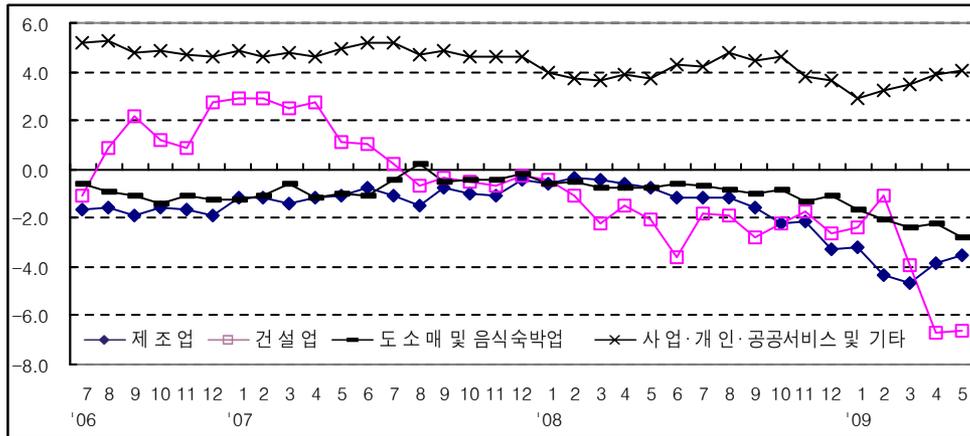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9년 5월 고용동향』, 2009. 6.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자영업주·임시·일용근로자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9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2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천 명(-4.0%)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4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천 명(0.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316천 명으로 306천 명(3.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76천 명으로 89천 명(-1.7%) 일용근로자는 2,092천 명으로 138천 명(-6.2%) 감소함.
 - 2008년 이후 임시·일용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그림 6 참조).
- 2009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4천 명(-24.5%)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459천 명으로 748천 명(3.8%)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908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 명(34.2%)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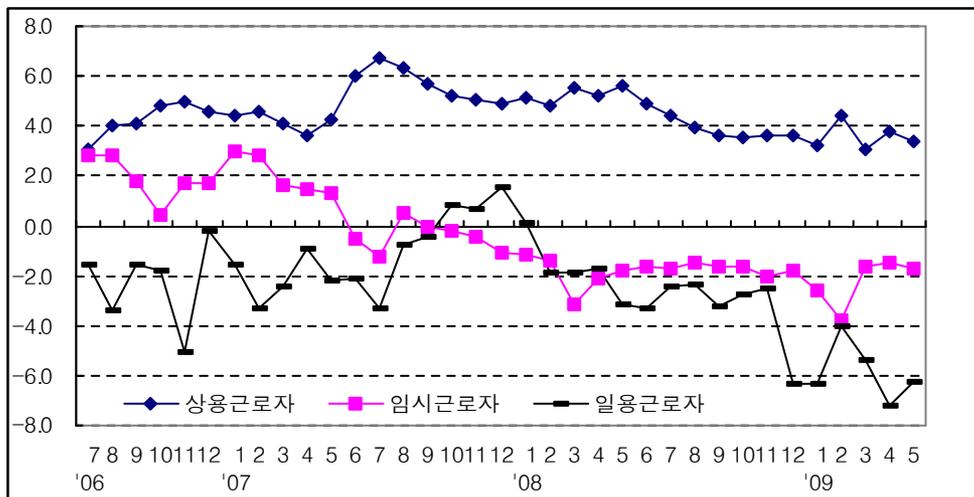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39 (0.8)	23,752 (0.6)	23,636 (0.3)	22,904 (-0.6)	23,524 (-0.8)	23,720 (-0.9)
비임금근로자	7,426 (-1.8)	7,097 (-1.4)	7,521 (-1.5)	7,534 (-1.7)	7,522 (-0.9)	7,343 (-1.1)	6,877 (-3.1)	7,171 (-3.8)	7,236 (-4.0)
자영업주	6,035 (-1.4)	5,816 (-1.3)	6,073 (-1.1)	6,092 (-0.9)	6,052 (-1.2)	5,939 (-1.6)	5,620 (-3.4)	5,765 (-4.5)	5,791 (-4.9)
무급가족종사자	1,391 (-3.4)	1,281 (-1.8)	1,449 (-3.3)	1,442 (-4.8)	1,470 (0.7)	1,404 (0.9)	1,258 (-1.8)	1,406 (-0.9)	1,445 (0.2)
임금근로자	16,156 (2.6)	15,954 (2.0)	16,350 (1.8)	16,405 (1.9)	16,229 (1.3)	16,294 (0.9)	16,027 (0.5)	16,353 (0.6)	16,484 (0.5)
상용근로자	8,790 (5.1)	8,839 (5.2)	8,981 (5.2)	9,010 (5.6)	9,101 (4.0)	9,106 (3.6)	9,157 (3.6)	9,227 (3.7)	9,316 (3.4)
임시근로자	5,156 (-0.6)	5,064 (-1.9)	5,141 (-1.8)	5,165 (-1.8)	5,050 (-1.6)	5,062 (-1.8)	4,928 (-2.7)	5,051 (-1.5)	5,076 (-1.7)
일용근로자	2,211 (1.0)	2,051 (-1.2)	2,227 (-2.8)	2,231 (-3.2)	2,079 (-2.6)	2,126 (-3.8)	1,942 (-5.3)	2,076 (-7.2)	2,092 (-6.2)
36시간 미만	2,549 (-5.1)	2,770 (-8.1)	3,055 (19.1)	3,981 (55.5)	5,132 (29.5)	2,833 (11.1)	3,092 (11.6)	2,988 (19.3)	3,007 (-24.5)
36시간 이상	20,806 (2.2)	19,888 (2.6)	20,546 (-1.7)	19,711 (-6.0)	18,139 (-5.7)	20,552 (-1.2)	19,351 (-2.7)	20,300 (-3.2)	20,459 (3.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9년 5월 고용동향』, 2009. 6.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모든 연령대·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취업유경험 실업자 증가

- 2009년 5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 연령에서 증가
 - 2009년 5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7.6%, 0.7%p), 30대(3.7%, 0.5%p), 40대(2.8%, 0.8%p), 50대(2.8%, 0.9%p), 60대 이상(2.1%, 0.9%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8%, 0.9%p), 고졸(4.4%, 0.8%), 대졸 이상(3.7%, 0.6%p) 모두 상승하였음.
- 2009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93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03천 명으로 192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4월	5월
전 체	734(3.0)	801(3.4)	767(3.1)	753(3.0)	752(3.1)	757(3.1)	908(3.8)	933(3.8)	938(3.8)
15~29세	312(7.0)	328(7.3)	327(7.4)	307(6.9)	303(6.9)	300(7.0)	368(8.6)	348(8.0)	333(7.6)
30~39세	183(2.9)	193(3.1)	187(3.0)	197(3.2)	193(3.1)	202(3.3)	227(3.7)	249(4.1)	227(3.7)
40~49세	126(1.9)	160(2.4)	138(2.1)	133(2.0)	138(2.1)	134(2.0)	166(2.5)	177(2.6)	186(2.8)
50~59세	78(1.8)	83(2.0)	82(1.8)	83(1.9)	91(2.1)	93(2.1)	108(2.4)	118(2.6)	132(2.8)
60세 이상	35(1.3)	38(1.6)	33(1.2)	34(1.2)	27(1.0)	29(1.1)	39(1.6)	41(1.5)	60(2.1)
중졸 이하	109(2.0)	128(2.5)	120(2.2)	109(1.9)	113(2.1)	111(2.1)	143(2.9)	130(2.5)	152(2.8)
고졸	372(3.7)	402(4.0)	368(3.7)	364(3.6)	381(3.8)	383(3.8)	438(4.5)	442(4.5)	440(4.4)
대졸 이상	253(2.9)	271(3.1)	279(3.1)	280(3.1)	258(2.9)	263(2.9)	327(3.6)	361(3.9)	346(3.7)
취업무경험실업자	40	44	49	43	39	37	47	33	35
취업유경험실업자	694	757	718	711	713	721	861	900	90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9년 5월 고용동향』, 200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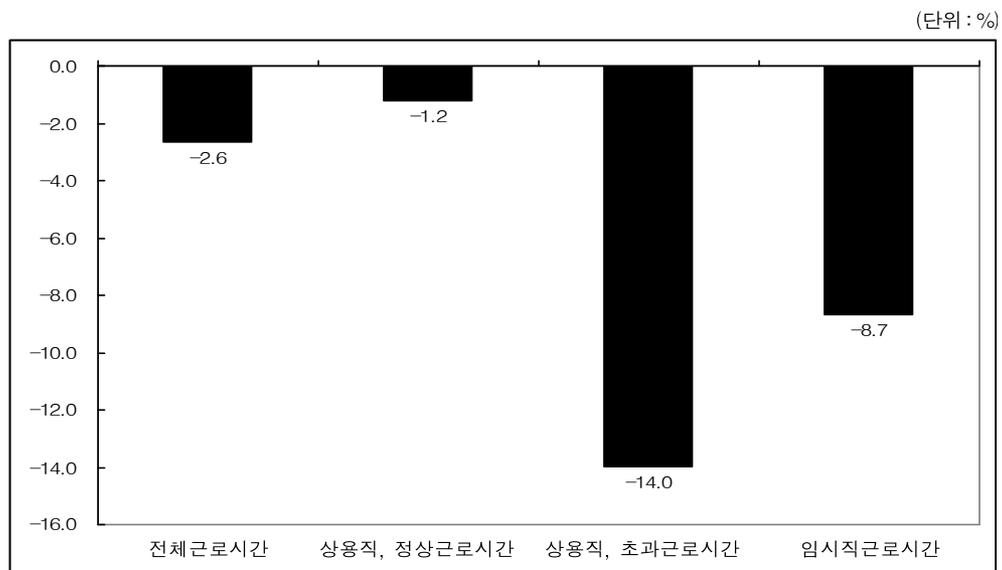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근로시간 동향

◆ 경기악화로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과 임시직 근로시간 대폭 감소

- 2009년 1/4분기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
 - 2009년 1/4분기 평균 전체 근로자의 월근로시간은 166.2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170.7시간)에 비해 2.6% 감소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8.2시간 기록

(그림 7)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9. 1/4분기.

-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 임시직의 총근로시간 큰 감소
 - 2009년 1/4분기 평균 상용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15.4시간을 기록하여 14.0%의 감소를 보임.
 - 임시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도 월 104.2시간을 기록하며 8.7%의 큰 감소를 보임.

◆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근로시간 크게 감소

- 산업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감소 추세 속에서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함.
 - 2009년 1/4분기 중 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6.6%, 개인서비스업은 3.4%의 감소 수치 기록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전 산업	178.8	170.7 (-1.2)	170.2 (-3.6)	171.7 (1.8)	172.9 (-3.3)	166.2 (-2.6)
제조업	190.1	187.2 (2.4)	187.5 (-0.2)	185.5 (4.4)	189.6 (-0.3)	174.9 (-6.6)
건설업	181.3	153.4 (-2.2)	153.0 (-7.5)	155.9 (-0.4)	158.4 (-5.5)	155.3 (1.2)
도매 및 소매업	167.7	165.1 (-2.0)	165.1 (-3.9)	168.0 (2.4)	170.2 (-1.6)	165.5 (0.2)
음식숙박업	172.9	166.5 (-4.3)	175.3 (-3.0)	174.4 (2.8)	174.9 (-4.0)	166.6 (0.1)
운수업	182.1	175.2 (-4.6)	181.3 (-2.5)	169.4 (-7.5)	173.9 (-9.5)	171.0 (-2.4)
통신업	192.2	161.9 (-0.2)	159.4 (-7.1)	164.4 (0.9)	166.4 (-2.7)	160.8 (-0.7)
금융 및 보험업	171.1	159.4 (0.3)	156.0 (-4.0)	160.8 (3.2)	164.3 (-0.8)	157.6 (-1.1)
부동산 및 임대업	165.6	183.7 (-9.2)	183.6 (-11.4)	183.6 (-5.9)	188.5 (-4.6)	180.8 (-1.6)
사업서비스업	197.6	168.8 (1.3)	166.2 (-0.1)	170.5 (7.7)	171.3 (2.1)	164.3 (-2.7)
교육서비스업	167.7	138.3 (-2.6)	134.3 (-5.0)	149.2 (10.5)	145.2 (2.0)	151.5 (9.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2.3	165.0 (-3.1)	165.9 (-3.7)	168.7 (1.9)	168.3 (-5.7)	162.3 (-1.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78.5	150.1 (-2.4)	152.5 (-3.0)	166.1 (8.2)	156.2 (-2.1)	147.3 (-1.9)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9.5	177.1 (-0.7)	177.2 (-2.7)	176.6 (1.7)	177.8 (-3.7)	171.1 (-3.4)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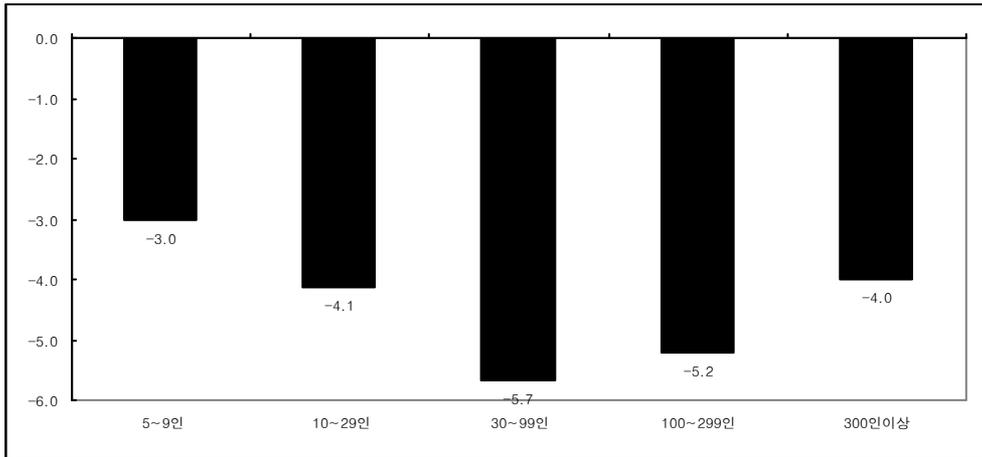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09년 1/4분기 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
 - 규모별 근로시간은 5~9인에서 3.0% 감소하였고, 10~29인에서 4.1% 감소, 30~99인은 5.7% 감소, 300인 이상에서는 4.0% 감소하는 등 중간규모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U자 형태를 띤.

[그림 8]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율(2009년 1/4분기)

(단위 : %)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9. 1/4분기.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전년에 비해 증가, 근로손실일수는 감소

○ 2009년 6월 23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0% 증가

○ 근로손실일수(6월 17일 현재)는 92,199일로 전년동기대비 61.8% 감소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09. 1. 1~2009. 6. 23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39	30	30.0
종 결	27	16	-
진 행	12 (1)	14 (8)	()안은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92,199	241,598	-61.8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6월 17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2008년 노동조합 조직률 10.5%로 2007년보다 0.3%p 감소

○ 2008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분석한 결과(「200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5%로 전년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전체 노조수는 4,886개로 전년대비 4.2%(213개소) 감소하였고, 조합원수는 1,66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3%(21,98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전체 조직률은 10.5%이나 기업규모별로 조직률을 세분화해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5.4%까지 이르러 대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대, 2004년 이후 1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교원 부문의 조직률은 감소, 공무원의 조직률은 증가함.

- 민간부문 조직률은 9.2%에서 8.8%로 기존의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으며, 교원 역시 21.5%로 전년대비 2.8%p 감소한 반면, 공무원 조직률은 75.3%로 전년대비 8.2%p 증가함.
- 조합원이 4천 명 이상 대폭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8,893명, 전교조 4,815명, 언론노조 4,118명,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이 4,575명 감소하였고, 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 8,573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6,411명, 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이 4,969명 대폭 증가함.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조합원수는 감소하고, 미가맹은 증가함.

- 2008년 말 기준 노동조합원수는 한국노총 725,014명(43.5%), 민주노총 658,118명(39.5%), 미가맹 282,666명(17.0%)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조합원수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노총은 2008년 기준 740,308명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는 등 2000년 이래 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민주노총은 2008년 기준 658,118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 한국노총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공무원노조 신규 가입 등으로 잠시 반등했던 조합원수가 2003년 이래 감소 추세를 이어감. 반면 미가맹은 282,666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17,610명)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08년 미가맹 조합원수 증가는 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수 증가에 기인(민공노

8,573명, 교육연맹 4,969명 등)

- 초기업단위로 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노동조합수는 기업단위 노조가 4,526개소(92.6%)로 여전히 지배적임.
 - 조합원수로는 초기업단위(지역, 전국단위 포함)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881,27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51.3%)에 비해 1.6%p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남.
 - 상급단체별 초기업단위 노조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61.7%가 기업별노조 소속으로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77.6%가 초기업단위 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상급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임.

◆ 2010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 2.75% 인상(시급 4,110원)

- 6월 28일 오후부터 6월 30일 새벽까지 3일 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현행 시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2.75% 인상하는데 최종 합의하여 결정함.
 - 20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당초 노동계는 ‘5,150원(28.7% 인상)’을, 경영계는 ‘3,770원(5.8% 삭감)’을 제시. 경영계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삭감안을 제시하였고, 노동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사 양측은 총 13차례 수정안을 내놓으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호 뚜렷한 입장차로 결국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30일 표결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함.
- 최저임금 2.7% 인상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2010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경제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며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일상적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 한국노총도 6월 30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4110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전함.

〈표 8〉 연도별 최저임금 노사 최초요구안 및 최종결정액 인상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측 요구안	12.8	69.1	52.1	28.6	36.3	35.0	37.0	35.5	28.7	26.3	28.7
사용자측 요구안	0.0	5.4	3.5	3.3	3.5	2.6	3.0	2.4	0.0	0.0	-5.8
최종결정액 인상률	4.9	16.6	12.6	8.3	10.3	13.1	9.2	12.3	8.1	6.1	2.75

자료 : 노동부.

◆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관련, 노-사간 갈등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보호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각 당과 노동계, 경영계의 서로 다른 주장에 부딪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6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당론을 확정함.

-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시행유예 결정을 규탄하고 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 민주노총도 한나라당의 당론 확정이 있기 전날인 6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적용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대신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기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와의 시각차를 보임. 경총은 6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제한기간 연장’이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의 한시적 유예’는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지원금 확대에 대해 경계의 뜻을 표함.
 -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부의 개정안이나 여당의 유예안 모두 미봉책이라고 반발하며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자는 입장을 보임.

○ 엇갈린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대노총과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6월 19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5인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비

정규직법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긴급현안으로 결정하며, 5인 연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6월 22일 2차 회의에서는 ▲ 비정규직 사용기간 ▲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 차별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화 등이 본안으로 다루짐.

◆ 쌍용차 노-사간 갈등 다시 고조

○ 5월 22일 쌍용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상호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 6월 18일 쌍용차 노사는 노조의 공장점거 이후 첫 노사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고, 이후 ‘조건없는 대화’에 같은 뜻을 보였으나 다시 상호 의견차이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함.
 - 쌍용차는 노조의 총파업 이후 6월 19일까지 매출 차질이 1,400억 원(6,385대)에 이른다는 점 등을 들어 경영악화 심화의 원인을 노조의 장기 파업에 돌리고, 6월 20일 노조에 업무방해 중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노조측이 공장에서 즉각 퇴거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물론 형사상 고발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시사함.
 -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6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통해 단체협약을 어겨 파업의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측”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힘. 또한 “사측과의 대화는 견해차만 확인했다”며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쌍용차 노조의 이 같은 ‘노정교섭’ 요구에 정부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

◆ KBS 비정규직 400여명 해고 추진

○ 한국방송이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대규모 계약 해지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음.

- 한국방송은 연봉계약직 사원 420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7월에 시행할 예정임. 한국방송 기간제사원협회에 따르면, 6월 5일 노사협의회에 제출된 한국방송 경영개혁단의 비정규직 인력운영 방안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직 노동자 3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59명은 자회사 이관, 222명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해 한국방송 기간제사원협회는 6월 22일 여의도 본사 앞에서 “KBS 경영진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KBS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역행하여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선다”며 강도높게 비판함.

◆ 포스코 계열사 포스데이타, 민노총 산하 노조설립

- 포스코의 IT계열사인 포스데이타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의 반발로 노동조합이 설립됨.
 - 포스데이타 노조는 5월 28일 노조 설립신고를 마치고 민주노총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했으며 현재 노사 양측이 분규사안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음.
 - 포스데이타는 와이브로 사업부진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4월부터 DVR사업을 매각하고 6월 15일에는 와이브로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절반 가량을 희망퇴직, 또는 대기발령하였음.
 -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인력감축에 대항할 뜻을 밝힘.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